

 국토교통부		보 도 자 료	
		배포일시	2019. 11.5.(화) / 총 2매(본문 2)
담당 부서	대광위 광역교통요금과	담당자	• 과장 장구중, 사무관 유찬호, 주무관 김재형 • ☎ (044) 201-5082, 5081
보 도 일 시		2019년 11월 6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1.5.(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“광역버스타고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더 받으세요”

- 기존 300원→350~450원 확대→월 최대 19,800원 절감
- 올해 시범사업 대상지역 확대(대구,광주,서울3개구) / 체험단 추가 모집

□ 앞으로 광역버스, 광역전철 등을 이용하는 광역통행자*들은 광역알뜰교통카드를 활용한 보행·자전거 마일리지 적립 한도가 확대되어 교통비를 더 많이 절감할 수 있게 된다.

* 편도 1회 기준 대중교통비가 2천 원 이상인 통행자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(위원장 최기주)는 11월부터 광역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광역통행자들의 마일리지 혜택을 1회당 현재 300원에서 350원~450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.

□ 지금까지 광역통행자들은 기본요금(경기광역버스 2,800원)이 높아 시내통행자들에 비해 광역알뜰교통카드를 통한 교통비 절감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았다.

- 이에 광역교통 수요자들이 교통비 절감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재 800m기준 250원~300원인 마일리지를 교통비 지출액에 따라 250원~450원으로 차등 상향한다는 계획이다.

1회 교통비	2천원 이하	2천원~3천원	3천원 초과	비고
현행 마일리지	250원	300원	300원	보행·자전거 800m 이동시
변경 마일리지	250원	350원	450원	

- 이에 따라 매일 출퇴근을 하는 정기통근자(월 44회 이용)의 경우, 현재 13,200원까지 적립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최대 19,800원을 적립할 수 있어, 먼 거리를 통행하는 광역통행자들이 보다 교통비 절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

- 한편 올해 6월부터 진행 중인 광역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 대상 지역이 현재 11개 지역*에서 대구시, 광주시, 서울지역(3개구-종로, 서초, 강남)으로 추가 확대될 계획이다.

* 11개 지역: 부산, 인천, 대전, 울산, 세종, 경기, 청주, 전주, 포항, 영주, 양산

- 이에 따라 광역알뜰교통카드는 모든 광역시, 경기도 전역 및 서울(3개구) 지역 주민들이 발급·사용할 수 있으며, 현재 누리집 (<http://alcard.kr>)을 통해 체험단을 추가 모집 중이다.

- 국토교통부 광역교통요금과 장구중 과장은 “이번 마일리지 혜택 확대를 통해 광역교통 수요자들이 교통비 절감 효과를 체감하게 될 것”이라면서

- “앞으로 광역교통 2030에 발맞춰 다양하고 합리적인 광역교통 요금정책을 개발하겠다.”고 말했다.

참고

광역알뜰교통카드 이용사례

(사례1) 동탄2 신도시에 사는 A씨는 매일 집에서 동탄역 앞 버스정류장까지 자전거로 이동(600m)하여 M4130 버스를 타고 서울역 환승센터에서 하차한 후, 회사까지 도보로 이동(200m)하는 광역통행자이다.(요금 3,200원) 지난 달 광역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여 월 13,200원(44회 적립)을 마일리지로 지급받았던 A씨는, 11월부터 마일리지 지급이 확대됨에 따라 19,800원(44회 적립)을 마일리지로 지급받아 6,600원의 교통비를 추가로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. (카드사 할인 금액을 더할 경우 약 3만원까지 절감 가능)



(사례2) 고양시에 거주하는 B씨는 집에서 고양시청까지 도보로 이동(450m)하여 9703 광역버스를 타고 광화문에서 내려 회사까지 도보로(350m) 매일 출퇴근 한다.(요금 2,300원) 지난 달 광역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여 월 13,200원(44회 적립)을 마일리지로 지급받았던 A씨는, 11월부터는 더 많은 마일리지를 적립하여(15,400원, 44회 적립) 2,200원의 교통비를 추가로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. (카드사 할인 금액을 더할 경우 약 25,000원까지 절감 가능)

